고성 옥천사 마음약방 콘서트 회향

지난해 10월 27일 첫 콘서트 시작해
월호스님 강연 · 가수 김무한 공연 등
구랍 29일 현진 스님 공연으로 회향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고성 옥천사(주지 마가)가 3회에 걸쳐 진행된 '마음약방 콘서트 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 를 회향했다.

고성 옥천사 주지로 부임한 마가 스님이 주지 진산식을 대신해 기획한 마음약방 콘서트는 지난해 10월 27일 월호 스님의 행복알약 3종 세트 강연과 찬불가수 김무한의 공연, 11월 24일에는 마가 스님의 불효자 영화 상영과 붓다라마 최진규의 공연, 12월 29일 광우 스님의 '나무아미타불! 노래하자' 강연과 찬불가수 현진 스님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구랍 29일 진주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국민의례, 삼귀의, 반야심경, 내외빈 소개, 광우 스님 소개 및 법문에 이어 최연현 화백 그림 '차 한잔하시게!' 기증, 황명분(반야월)보살 노래, 현진 스님(화가, 음악가) 공연, 선우선방합창단 공연(천의 손 천의 눈), 마가 스님 인사말, 사홍서원,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마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 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 콘서트는 절에 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찾아 나서자 해서 3개월 전에 월호 스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처음 법회를 열게 됐다"며 "법회를 통해 내 마음속에 어둠과 응어리, 화를 풀어내고 저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진주를 캐내 한 번 밖에 없는 내 인생 멋진 회향을 위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경남 고성 옥천사가 구랍 29일에 지난해 10월 27일 시작한 '마음약방 콘서트 마음속의 진주를 찾아서' 를 3회 째로 회향했다.

광우 스님은 생활 속의 염불수행을 주제로 한 '나무아미타불! 노래하자' 는 법문을 통해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체험의 종교이고 수행의 종교이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이해하고 생활하고 체험해야한다"며 "절에 다니면서 그 기도라는 맛을 보고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은혜라는 그 맛을 본 사람은 평생 불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또 "불교는 남을 보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보는 종교이다. 불교는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앞에 행복과 불행이 펼쳐진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공덕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며 "자신의 업을 닦고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내년에도 공덕을 닦는 그런 불자로서 아름다운 길을 잘 닦아 나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회에 걸친 마음약방 콘서트를 회향하는 이날 법회에는 옥천사 마가 스님, 해인사 상임포교사 광우 스님, 고성 청련암 원명 스님, 진주 약사정사 진여 스님, 창원 미타사 선해 스님, 상공 스님, 대광사 상전 스님, 법성선원 정민 스님, 관음묘원 일진 스님, 현진암 현진 스님, 청담사 상연구소 허익구, 김규범, 국립경상대학교 교수불자회장 김용진교수 외 교수불자회원, 진주불교회관, 대한불교청년회 강인식경남지구회장, 성륜불교문화재단 선우선방, 거사림회, 권현옥 진주불교학생회 후원회장, 진주불교대학교학생회 및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마가 스님은 2023년에 부산, 창원, 진주에서 명상학교를 열겠다고 밝혔다. 3월 첫 째 주부터 6월 마지막 주까지 3개월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열리는 명상학교는 마가 스님, 월호 스님, 심산 스님, 만초 스님, 금강 스님, 혜안 스님, 효록 스님, 최순애, 원정혜, 김창기, 조희창 교수들이 강연에 나설 예정이다.

고창 선운사 새해맞이 법회 열어

해넘이 · 해맞이 산사음악회 등
천마봉서 해맞이 법회 봉행해
총 7명 학생에 장학금 전달도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임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선운사는 구랍 31일 성보박물관에서 해넘이 · 해맞이 선운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김문주 前 BTN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해넘이 · 해맞이 산사음악회는 1부 개회, 내빈소개, 장학금 전달, 주지스님 인사말, 축사, 2부 음악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음악회 후에는 재야의 범종 타종에 이어 새벽 산행길에 올라 천마봉에서 해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순천향대학교 양동주 학생을 비롯한 대학생 4명과 초 · 중 · 고 학생 각 1명씩 총 7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장학금은 지난해 행복바라미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산사음악회는 여러 번 자연재해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연기를 거듭한 끝에 열린 음악회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열리게 되서 나름 의미가 있다"며 "더구나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줄 수 있게 되어 더 흐뭇한 자리가 된 것 같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선운사와의 인연을 오래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부 음악회는 통기타 가수 박강수의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가수 박강수는 맑은 목소리로 추억의 노래와 올드 팝을 불렀다. 이어 '앙상블 동리율객' 의 대금 창작곡 '다향' , 첼로와 거문고 '육자배기' , 거문고와 피아노 타악기 앙상블 '한오백년' , 소리꾼 최영민의 춘향가 중 '쑥대머리' 가 이어졌으며, 전 출연진이 홍보가 중 '박타령' 을 연주했다. 또 첼리스트 김규식은 Saint-Saens의 'The Swan'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연주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을 비롯하여 참당선원장 법만 스님, 고창군종합사회관장 대원스님, 동국사 주지 재안스님 등 스님들과 임종혁 선운사 신도회장, 임정호 고창군 의회 의장을 비롯한 기관장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현대FC 이승기, 금산중에 기금 전달

2019년에도 3000만 원 기탁



프로축구 전북현대FC 소속 이승기 선수가 전북현대 유소년 U-15 동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 금산중학교에 축구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 금산중학교(교장 박기남)에 따르면 전북현대 이승기 선수는 이날 구랍 28일 금산중학교를 방문해 유소년 축구발전 기금 3000만 원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승기 선수는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는 전북현대의 유스팀인 금산중학교 축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축구발전기금이 후배들이 더 크게 성장해서 훌륭한 축구선수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기 선수는 금산중학교의 축구팀 발전을 위해 지난 2019년에도 30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금산중학교는 이 기금으로 학교 축구장 조명탑을 설치해 축구선수들이 야간에도 훈련할 수 있게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사암승가회 해넘이법회 봉행

계묘년 새해 힘찬 도약 기원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일원. 금산사 주지)가 해넘이 법회를 봉행했다. 구랍 31일 부안 대항리 해변에서 열린 이날 법회는 전북불교회관 주지 제환 스님, 우림 스님 등 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된 해넘이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임인년 한 해동 안 쌓인 업장을 참회하고 계묘년 새해의 희망과 전북지역 불교의 힘찬 도약을 기원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회에 동참한 불자들은 서쪽으로 지는 2022년의 마지막 해를 바라보며 각자의 희망과 소원을 기원하며 정진을 이어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함양불교사암연합회, 함양군에 장학금 기탁



함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오, 보림사 주지)는 구랍 29일 (사)함양군장학회를 찾아 지역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한 스님들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우리 사회가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곧 극복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뜻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베풀어주신 온정과 자비로운 뜻을 받들어 함양의 지역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거제 계룡사, 방화로 대웅전 전소

50대 방화용의자 체포 조사 중
인명피해 · 다른 전각 피해 없어



거제 계룡사(주지 선암)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이 전소됐다.

1월 3일 0시 30분경 발생한 화재로 129㎡의 계룡사 대웅전은 전소됐으며 화재발생 약 3시간 30분만인 새벽4시경 완전히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다른 전각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아 다른 전각의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한 남성이 흰 통을 들고 법당에 들어서는 모습과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서 3시간 만에 인근 주점에서 만취상태의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방화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 남성은 범행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사 관계자는 거제경찰서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화재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함양 서운암, 이웃돕기 성금 기탁

성금 106만 7000원 기탁



함양 서운암(주지 순민)이 구랍 29일,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6만 7000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서운암 내 자비실천함을 설치하여 신도들과 방문객들이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것이다.

순민 스님은 "작은 나눔을 불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 뜻깊은 곳에 성금을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이웃돕기 활동에 우리 불자들이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병영 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우리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서운암 순민 스님 및 불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불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운암 순민 스님은 2014년부터 지역발전을 위해 장학금, 이웃돕기 성금 등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김해 화엄사, 어려운 이웃에 떡국떡 기탁

떡국떡 50상자 기탁



김해 화엄사(주지 법륜)는 지난 구랍 29일 김해시 삼안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떡국떡 50상자(100kg)를 기탁했다.

화엄사 주지 법륜 스님은 "떡국은 새해를 맞는 대표적 음식으로 모든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나눠먹으면서 가족 간 이웃 간에 온정을 나누고, 따뜻한 새해를 시작하자는 마음에서 후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소희 삼안동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해주신 화엄사에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귀중한 성품은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화엄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도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떡국떡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화엄사는 김해시 삼방동에 위치한 사찰로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580호 지장보살본원경을 소장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견강암, 새해맞이 떡국나눔 봉사

회원 30여 명 봉사 동참



자비나눔 실천도량 견강암(주지 향공)이 구랍 28일 부산 사상구 고동바위 공원에서 떡국나눔을 진행했다.

이번 떡국나눔은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인 (사)부산정각원의 주최로 진행됐으며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지역 어르신을 위해 회원 30여 명이 나눔 봉사에 참여했다.

주지 향공 스님은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의 재확산과 각종 사고와 고물가 시대,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어 모두가 힘든 시기"라며 "새해에는 재난 사고가 없고 모두가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떡국을 준비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많이들 드시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시라"고 어르신들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 출범한 견강암 산하 봉사단체 (사)부산정각원은 법인설립 이전인 1995년부터 향공 스님과 함께 만발공양 및 장학사업을 실천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월서 대종사, 새해 맞아 자비나눔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 월서 대종사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월서 대종사는 1월 5일 불우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1000만 원과 독거어르신 가정 지원 김장김치 250kg(150만원 상당),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100만 원을 마포구 공덕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또한 미얀마 양센 소재 S학교에 정비자금 5000달러를 추가 지원했다.

한편, 천호월서희망재단은 동남아 오지마을에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미얀마 바간 쉐띳마을 중학교 낙성 등 2012년부터 캄보디아, 네팔, 라오스, 미얀마 등 불교국가에 구호활동 및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